

[프로야구]'개막 만루포' 오재원 "승부 올 줄 알았다"

등록 2013.03.30 18:23:31 | 수정 2016.12.28 07:13:43



【대구=뉴시스】조용석 기자 = 스토브리그에서 부쩍 몸집을 늘린 오재원(28·두산 베이스)이 개막전부터 매서운 방망이를 휘두르며 변화를 예고했다.

오재원은 30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의 공식개막전에서 6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출전, 만루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1홈런) 1볼넷 4타점으로 팀의 9-4 승리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77경기에 출장한 오재원은 타율 0.282(188타수 53안타)로 무난했지만 단 한 개의 홈런도 때려내지 못했다. 100경기 이상 출장했던 2008~2011시즌 4년 간 홈런은 고작 6개에 불과할 만큼 장타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힘이 실린 투구'에 맞서기 위해 오재원은 스프링캠프에서 77~78kg이었던 몸무게를 86kg까지 불렀다. 또한 웨이트트레이닝을 통해 몸에 맞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무던한 애를 썼다.

노력의 결실은 개막전부터 드러났다.

0-0으로 맞선 1회초 2사 만루에서 첫 타석을 맞은 오재원은 볼카운트 3-2에서 삼성 선발 배영수의 143km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왼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110m짜리 만루 홈런(비거리 110m)을 때려냈다.

2013시즌 첫 홈런을 만루 홈런으로 때려낸 오재원은 1990년 한대화 KIA 퓨처스 감독(당시 해태 타이거즈)이후 역대 2번째로 시즌 첫 홈런을 그랜드 슬램으로 때려낸 선수가 됐다. 자신의 개인 첫 만루 홈런이자 2011년 9월 이후 18개월 만에 맞 본 홈런포였다.

3회 유격수 뜯공으로 물러난 오재원은 5회 무사 1루에서 맞은 3번째 타석에서 차우찬을 상대로 1루수와 2루수 사이를 꿰뚫는 안타를 때려내며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오재원은 후속타 불발로 득점까진 이르지 못했다.

6회 내야 땅볼로 숨을 고른 오재원은 9회에 볼넷으로 출루했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오재원은 "카운트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투수가 승부를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보고 들어갔다"며 "직구가 약간 높았는데 컨택이 잘 돼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넘어갈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홈런이 됐다"고 즐거워했다.

김진욱 감독은 "공격 흐름을 강조했는데 선수들이 잘해줘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고 칭찬했다.

chojuri@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